

시로 읽는 성보순례
백제의 미소
국보 제84호 서산 마애삼존불상
백제시대 ▶2면

현대불교

허망한 쾌락을 멀리하고
찌든 번뇌의 얼룩을 닦아
그대의 마음을 청정케 하라.
「법구경」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6년 단기 4345년(음력 8월 25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909호 2012년 10월 10일 수요일

마음 치유 열기 뜨겁다

리카르 스님, 존 카밧진 등 서구 전문가 방한 연이어

올해 한국 사회는 '힐링'이라는 트렌드가 중심이 돼 움직인다. 이는 우리 사회의 정신이 많이 병들어 있다는 반증이다.

각종 문제로 신음하는 한국 사회에 세계적인 힐링 전문가들이 11월 줄지어 방한한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승려와 철학자〉의 저자인 마티외 리카르 스님,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MBSR) 창시자 존 카밧진 박사, 미국 담마수카명상센터를 이끄는 위말라람시 스님이 바로 주인공이다. 이들은 한국에서 그들 나름의 독특한 마음치유법을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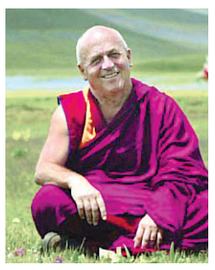
리카르 스님, 봉은사 등서 강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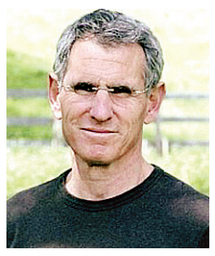
프랑스 국적인 마티외 리카르 스님은 11월 2일 12시 서울 사간동 법련사에서 방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후 7시 서울 봉은사에서 '마음을 훈련시켜 두뇌를 변화시키라' 특강을 갖는다. 3일과 4일에는 경기도 남양주 봉인사에서 티베트 전통수행법과 닝마파의 예비수행법을 주제로 명상워크숍을 진행한다. 5일과 6일에는 산사순례도 계획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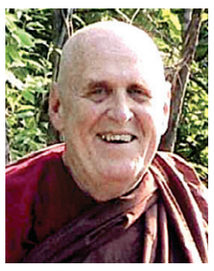
스님의 방한에 맞춰 1일부터 10일까지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는 사진전이 열린다.

리카르 스님의 방한에는 티베트 불교 닝마파 법왕이자 달라이라마의 스승이었던 딜고켄체 린포체의 후계자인 랍잠 린포체가 함께한다.

리카르 스님은 "마음수련은 대립적인 두 개의 심적 요소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는 생각에 근거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우리는 사랑에서 증오로 옮겨 갈 수 있지만 동일한 사람이나 대상을 향해 그를 해하려는 마음과 위하려는 마음을 동시에 품을 수는 없다"고 말한다.


리카르 스님


존 카밧진 박사


위말라람시 스님

존 카밧진, 워크숍 · 대중특강

세계적인 심신의학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는 '마음챙김에 근거한 스트레스완화'(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MBSR)프로그램 창시자인 존 카밧진 박사(메사추세츠 의대 명예교수)의 방한도 주목할만 하다. 첫 방한이기는 하지만 그는 한국과는 남다른 인연을 가지고 있다. 1974년 故 숭산 스님을 만나 참선을 배웠으며 스님의 주례로 결혼하기도 했다.

존 카밧진 박사는 11월5일부터 7일까지 세종대 컨벤션센터에서 워크숍을 진행한다. 5~6일 참가비는 60만원, 7일 하루 코스는 25만원이며 전체 참가비는 80만원이다.

대중을 위한 공개특강도 진행된다. 존 카밧진 박사는 대한불교진흥원과 한국심신치유학회가 10일 서울 마포 다보빌딩 3층 법당에서 공동 주최하는 대중 강좌에서 마음치유방법을 전한다.

위말라람시, 빨리 경전 명상법

위말라람시 스님은 상좌부계통의 주석서를 배제하고 팔리경전에 기초해 명상을 가르치며, 현대 미국에서 담마 수카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방한해 호두마을에서 2차에 걸쳐 14일씩 명상을 지도했고, 중앙승가대학에도 강연을 하기도 했다.

금년에는 11월 3일부터 경기도 용인 법륜사에서 2차례 10일간 특별 수행을 지도한다. 선착순 30명을 대상으로 3일부터 12일, 17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다. 신중일 기자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10월 4일 미국 뉴욕 유엔 플라자 처치센터서 현지 종교인들에게 한국불교 정통수행법인 간화선의 핵심을 역설했다. 사진은 진제 스님이 법문 뒤 목사, 랍비 유대인 지도자 등 현지 주요 성직자들과 만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있는 모습. 관련기사 2면

스님, 학자 2백여 명 "폐간 안돼"

불교학계, '불교평론' 폐간 반대 성명 발표

불교학계와 스님들이 〈불교평론〉 폐간을 막기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임승택 경북대 철학과 교수를 주축으로 한 불교학자와 스님 220명은 10월 5일 〈불교평론〉 폐간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학술적 논의의 장에서 자신의 입장에 반하는 논문이 등장하면 그것에 대해 학술적으로 반박하여 스스로를 변론하는 것이 옳다. '이미 배포된 책자의 전량 수거'라는 결정은 인터넷 시대에 걸맞지 않은 시대착오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이 없음을 밝힌 덕숭총림에 대해서는 "총림의 문제제기로 발단이 된 만큼 덕숭총림 측도 이번의 사태에서 도의적 책임을 모면하기 힘들다"며 "덕숭총림은 지금과 같은 간섭이 건전한 학술적 담론의 분위기에 부당한 압력으로 비추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와 〈불교평론〉 측에 대한 과오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미 배포된 정기 학술간행물의 회수는 그 심각성과 파장이 큰 만큼 이러한 사실을 덕숭총림 측에 충분히 인지시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동국대 경주캠 총장에 이계영 교수

5일 법인 이사회서 만장일치 선임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에 이계영(58 · 사진) 컴퓨터공학부 교수가 선임됐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회(이사장 정련)는 10월 5일 제 273회 이사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계영 교수를 총장으로 선출했다.

이계영 신임 총장의 임기는 2012년 10월 5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다.

이계영 경주캠퍼스 총장은 1980년 동국대 전자계산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단국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85년부터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교수로 재직하며 공학대 학장, 교무처장, 전략기획본부장 등의 주요 보직을 맡았다.

이계영 경주캠퍼스 총장은 앞서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발전 및 경영에 대한 소견서'에서 "전례없는 위기를 맞은 경주캠퍼스 모든 구성원들은 위기가 곧 기회라는 비장한 각오로 사태극복에 온 힘을 모아야한다"며 "세상을 깨우는 글로벌 동국의 비전으로 '명품 동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경주캠퍼스 위기 극복을 위해 3단계로 제시했다. 2014년 2월까지 위기극복 시기로 지정하고 재정지원 조기 탈출을 위해 이미지쇄신 및 홍보, 재원확보 등에 나설 예정이다.

2015년 2월까지는 학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구조개혁 및 기업 연계 교육 구축을 제시했으며 2016년 2월까지는 학제 및 행정조직 안정화와 지속경영 시스템 구축에 주안점을 두었다.

노덕현 기자

화엄사 각황전 방화 시도 '충격'

5일 새벽 발생… 방염처리로 피해는 적어

화엄사 "엄정한 수사 촉구"

최근 대구 동화사에서 개신교 목사의 훼불에 이어 이번에는 국보 불교문화재에 대한 방화가 시도돼 국민과 불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종삼)는 10월 5일 "국보 제67호 각황전을 거동 수상자의 방화로 전소될 위기에 처했었다"고 밝혔다.

화엄사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5일 새벽 2시 30분 경 각황전 뒷문에 의도적 방화가 이뤄졌으며, 이로 인해 문 절반이 그을리는 피해를 입었다. 현재는 현장 조사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최초 발견자는 아침 예불을 위해 법당에 온 우승 스님으로 당시 신나 냄새가 심하게 났고, 잔불이 남아 있어 청수물로 급히 잔불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중에 설치된 폐쇄회로 TV를 확인한 결과 건장한 체격의 등산복 차림의 남자가 신문지에 불을 붙이고 방화한 뒤 급히 도망치는 장면이 확인됐다.

화엄사는 "전소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던 것은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한 방염방재 처리사업 덕분"이라며 "하지만 소중한 민족문화유산인 각황전을 온전히 보존하지 못한 점은 깊이 참회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재 당국과 협력해 문화재 보존을 위한 더욱 강화된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수사기관은 조속한 수사를 통해 범인을 색출해 일벌백계하길 바란다"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신중일 기자


국보 제67호 각황전이 거동 수상자의 방화로 전소될 뻔 했다. 전소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피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었던 것은 방염 처리때문이었다. 사진은 방화로 그을린 각황전 뒷문.

909호 INDEX

종합 2 · 3
조계종 원로의장 10일 선출
조계종 종정 진제스님 UN서 법문
태고종 제37기 합동득도수계식
문화재 관리 허술 국감서 지적
동화사 총림지정 본격화

학술 · 문화재 6
용성 스님 역경 사업 의미 조명
〈대승기신론〉최고본 주석서 발견
석가탑 해체 복원 7

문화 15
울산박물관 임강사 종 전시





사단법인 전국사설사암단체총연합회

제2대 회장 각운 대종사 취임법회

일시_ 2012년 10월 12일 (금요일) 14시
장소_ 국회의사당 헌정기념회관
문의_ 02)2198-5022~4. 010-4167-3666

전국 200개 회원 종단 대표자 및 신행 단체장, 사부대중이 한자리에 모여 본 법인 제2대 회장 취임법회를 봉행합니다. 공사간 다망하시더라도 뜻깊은 자리에 동참하시어 법석을 빛내주시고, 부처님의 가피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소원이 성취되시기를 합장 기원드립니다.

사단법인 전국사설사암단체총연합회 회장 각운 합장

식 순
-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및 사홍서원
- 내빈소개 및 경과보고 (윤기순-본 법인 대표이사)
- 법어 (각성 - 본 법인 총재)
- 증명인준식 (혜암 - 본 법인 증명법사)
- 봉행사 (성철 월하 - 본 법인 대외협력위원장)
- 환영사 (무공 대성 - 본 법인 전국지부관리위원장)
- 축사 (법운 - 대한불교조계종 선학원 청룡암 회주)
- 휘호전달 (황봉 - 대한불교연지조계종 종정)
- 회장 취임사
- 발원문 (무아심 - (사)한국불교조계종 무무암 총무)

후원 : 사단법인 전국사설사암단체총연합회 사회복지법인 세계불교종단연맹복지재단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족신앙총연합회 종교세계신문사 巫教新聞